

서포터즈가 있기에 한국이 제2의 고향

경기도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돌보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서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를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에 다가가 친구가 되어 주고, 위기의 순간에는 수호천사가 되어 주기도 하는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으로 행복을 되찾는 다문화가정이 나날이 늘고 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의 이야기는 자칫 소외되기 쉬운 결혼이민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희망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날아온 멜린다의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세 아이의 엄마 ‘멜린다’입니다. 저의 이웃 중에는 베트남에서 온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의 아들은 5살인데도 말을 못합니다. 아이 엄마도 한국말이 서툴러서 아이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2012년 8월 경기도청 다문화가족과에 ‘멜린다’라고 하는 필리핀 여성의 편지가 도착했다. 멜린다는 경기도 여주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한국에 온 지 오래되었는지 제법 또박또박 한글을 써 놓았다. 편지를 읽어본 다문화가족과 담당자는 곧바로 그 여성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로 연락을 취하여 편지의 내용을 전달했다. 경기도에는 총 3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경기도와 시·군의 다문화가족 사업을 위탁받아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멜린다를 찾아가서 보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았다. 이웃의 상황도 직접 가서 확인한 후에 언어발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아이가 말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다문화가정의 고민을 해결해 줌으로써 아이 엄마인 베트남 여성은 물론 처음 편지를 보낸 멜린다까지 무척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 왔다.

멜린다가 보낸 한 통의 편지는 베트남 여성이 있는 다문화가정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사는 다문화가정 모두를 위한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계기로 경기도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멜린다의 편지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멜린다 이웃여성의 경우처럼 다른 사례를 발굴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동안 시·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해 왔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다문화가정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발대식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같은 이민자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멜린다처럼 이민자이면서도 한국에 이미 잘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와준다면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논의를 거쳐 경기도는 결혼이민자가 같은 결혼이민자의 고충을 돌봐주는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3多 실현! “다문화, 다함께, 다행복!”

2012년 12월 27일 발대식을 시발점으로 경기도의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경기도에서는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사업의 의미를 ‘3多(다)-다문화, 다함께, 다행복!’의 슬로건으로 표현했다.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된 다문화가정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다문화가정 지원의 메시지를 슬로건에 담은 것이다.

발대식에 앞서 경기도에서는 시·군에 공문을 보내어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를 선정하도록 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사업 슬로건

첫째, 결혼이민자의 속사정을 잘 아는 가까운 이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550개 읍·면·동마다 1명의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를 선정하도록 했다.

작은 단위로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를 구성함으로써 바로 이웃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속사정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의 손길이 닿기 힘든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고충을 알 수 있는 것은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뿐이기 때문이다.

둘째, 같은 결혼이민자로서 한국에 잘 정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고충과 아픔을 이심전심으로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한국에 잘 정착한 사람이어서 다른 결혼이민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국한 지 5년 이상 되고, 한국어 중급 수준으로 활동성이 많은 사람’으로 일차적인 자격 기준을 정하였고, 해당 읍·면·동에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를 할 만한 적절한 결혼이민자가 없을 경우 내국인 중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많은 여성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선정한 517명의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들이 모여 2012년 12월 27일 발대식을 가진 후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는 2년의 임기로 활동한다. 2013년에 제1기를 위촉하였고, 이어서 2015년에는 제2기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를 새롭게 위촉, 구성하게 된다.

한편,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군 다문화가정 담당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2~3명,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리더 등 5명 이내로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해 나간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활동에 따른 활동비 지급 여부 결정 및 지급,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해촉 및 위촉 관련 일,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며 월 2회씩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마음은 하나 도움의 손길은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신규자 발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하면 결혼이민자로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 정보 제공 서비스, 기타 한국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모르거나 또 다른 사정 등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의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그러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하게끔 연계시키는 일이다.

둘째, 어려운 다문화가정 발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이다.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결혼이민자가 있는지 살피고 만약에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결혼이민자가 있을 경우 바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부터 적절한 응급 지원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의 역할은 대단히 전문적이거나 생업을 제쳐두고 해야 할 만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고, 직접 무언가를 해주기보다는 이웃의 사정을 파악해서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경기도 사업 담당자의 설명이다.

셋째, 멘토 활동이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역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멘토 활동이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서포터즈가 멘토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결혼이민자가 멘티가 되어 멘토와 멘티로서 교류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한국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시장을 보거나 요리를 하는 일, 은행에 가서 돈을 찾거나 동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발급하는 일도 무척 어려운 관문들이다. 특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말벗이나 친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이민자들에게 다가가 함께 시장을 보고, 은행에 가고, 요리를 가르쳐 주거나, 말 상대가 되어 주는 것이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의 역할인 것이다.



커피 바리스타 체험 활동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는 활동 내역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를 받게 되는데, 신규자 발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건은 1만 원, 어려운 다문화가정 발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건은 2만 원, 멘토 활동은 2만 원으로 책정된다.

각 경우마다 심의 기준이 있다. 신규자 발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업 연계 및 교육, 방문교육)에 등록하고 1개월 이상 수강한 경우이어야 하고, 행사에만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어려운 다문화가정 발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경우에는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남편과 시집과의 갈등, 언어 소통 등의 어려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관련 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여야 하며, 일상적이고 사소한 어려움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멘토 활동의 경우 멘티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멘토의 활동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심의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의 활동에 대한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이다.

같은 경험을 나누는 이심전심의 친구

“우리 옆집에 사는 베트남 여성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집에 사는 필리핀 여성이 한국어를 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의 도박과 외박으로 생활비가 없어 위기에 빠진 여성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수시로 이러한 연락이 온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가 전하는 이야기들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 지원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과 네트워크 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가 발굴되는 즉시 지원에 들어갈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사례를 발굴하는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다.

시흥시 지역의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원지영(가명) 씨는 2014년 서포터즈가 된 다음부터 주변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버릇이 생겼다.

“결혼이민자가 있으면 꼭 저에게 알려 주세요.”

원지영 씨의 눈에는 결혼이민자만 보인다. 한번은 공장에 다니는 지인이 같은 공장에 베트남 결혼이민자인 잔00 씨가 있다고 귀뜸을 해주었다. 그런데 잔00 씨가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어린 딸아이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공장 마당에서 혼자서 놀곤 하면서 몇 개월이 흘렀다는 것이다. 원지영 씨는 이러한 상황을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알리고 잔00 씨가 센터에 등록하도록 연계했다. 이후로 원지영 씨와 잔00 씨는 멘토와 멘티가 되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원지영 씨는 이렇게 말한다.

“잔00의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안내장을 잘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준비물을 자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00에게 제가 처음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던 시절에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안심시켰고, 학교

에서 보내온 안내문을 한동안 제가 대신 읽고 통역해 주었어요. 준비물을 어디서 사야 하는지, 오늘은 무슨 수업이 있고 몇 시에 끝나는지 등 학교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 주고 있어요. 더 자주 만나고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되었죠.”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는 결혼이민자로서 같은 경험을 소유하고 있기에 누구보다 결혼이민자가 처한 고충과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또 도움을 받는 결혼이민자의 입장에서 쉽게 마음을 열고 대할 수 있어서 금세 친구가 된다.

도움을 받는 결혼이민자에게 친구가 필요한 것처럼 도움을 주는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역시 친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가 의지하면서 돕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의 가장 큰 장점은 서포터즈 자신이 같은 결혼이민자로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비슷한 고충을 겪어본 사람들이라는 것”이 경기도 담당자의 설명이다.

다문화가정과 함께 서로 도와가며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마음으로 다가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주는 일, 친구가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의 중추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생명의 은인이 된 멘토와 멘티

때로는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의 역할이 생명을 구하는 일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바로 경기도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휘잉티김홍 씨의 경우이다.

2014년 4월 17일 새벽 휘잉티김홍 씨는 갑작스러운 전화 한통을 받았다.

바로 평소에 돌봐주고 있는 결혼이민자인 팜00의 남편이었는데, 위급한 목소리로 “아내가 이상하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며 “도와 달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웨딩티김홍 씨는 바로 그 집으로 달려갔다. 팜00은 입에 거품을 문 채 의식을 잃고 있었고 온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 웨딩티김홍 씨는 팜00의 남편과 함께 119에 응급구조 요청을 하고 부부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가는 동안 그 가정의 어린 아이들을 돌봐 주었다. 그리고 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어려움에 처한 팜00 씨 가정의 이야기를 전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웨딩티김홍 씨의 연락을 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광주시청 여성가족과에 도움을 요청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응급 지원하여 부모가 없는 동안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다.

또한 남부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와 연계하여 의료비 지원을 의뢰함으로써 어려운 형편에 처한 팜00 씨가 의료비 부담 없이 수술을 받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오포농협 사회복지팀의 자원봉사단에도 도움을 요청하여 팜00 씨가 퇴원 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의 신속 정확한 사례 발굴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적·물적 자원과 시스템이 함께 힘을 모아 시너지를 냄으로써 생명의 위협에 처한 결혼이민자가 생명을 구하고 그 다문화가정이 위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모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주변에 고맙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손발이 되어 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의 도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팜00 씨와 남편은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또한 베트남에서 온 도틴00 씨 가정도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긴 경우이다. 도틴00 씨는 시댁 식구와의 갈등, 정서적인 불안정을 겪다가 점점 증세가 심해져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게 되었는데, 도틴00 씨의 아이들이 엄마를 무서워하며 피할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다문화가정 서포터즈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틴 00 씨를 도왔던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한00 씨는 이렇게 말한다.

“이상행동을 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도틴00 씨를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어를 몰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이 시급했습니다. 또한 방치된 자녀들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했고, 가족들의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행태에 대해서 가족 상담을 진행하여 개선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는 결혼이민자의 수호천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기도 내 곳곳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의 따뜻한 손길이 온정을 전하고 있다.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말을 못해서 집밖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다문화가정 서포터즈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말벗도 되어 주었어요.”

“혼자서 첫 아이를 어떻게 출산할까, 고민이 되었는데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를 통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의 친구이자 도움을 받은 결혼이민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경제적인 위기, 정서적인 위기, 질병으로 인한 위기 등 삶의 여러 고비를 만날 때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고 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활동 성과를 보면 2013년에는 522명의 다문화가정 서포터즈가 활동하였고, 신규자 발굴 1,283건, 어려운 다문화가정 발굴 425건, 멘토 활동 608건으로 총 2,316건이었다.

2014년(9월 30일 현재)에는 549명의 다문화가정 서포터즈가 활동하고 있고, 신규자 발굴 2,283건, 어려운 다문화가정 발굴 1,538건, 멘토 활동 2,660건으로, 총 6,481건의 활동 성과를 보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활동 전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등록률을 보면,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활동 전인 2012년에는 17.3%였는데,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활동 1년 후인 2013년에는 28.1%, 2014년에는 33.7%로 계속해서 등록률이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함으로써 지원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양지로 나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일원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음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 다문화가정 서포터즈가 뛰고 있다.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다가감으로써 진정한 사회 통합을 조금씩 이뤄가고 있는 것이다. *

Interview

경기도 /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담당자

“서포터즈는 다문화가정의 친구입니다!”

Q.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한국어에 서툰 경우입니다.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 한국인 가족이나 이웃과도 교류가 어렵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는 먼저 이분들의 친구이자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Q.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A. 도에서는 사업을 총괄하면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시·군에서는 다문화가정 관련 지원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위탁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활동을 관리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는 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담당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동 주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을 되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Q.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A.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활동 실적이 해마다 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업 초창기이지만 사업 성과가 입증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서포터즈의 활동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해마다 최우수기관 및 최우수 개인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를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Q. 앞으로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요?

A.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로 위촉된 다음에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활동이 왕성한 분들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도 잘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 드리고, 활동이 다소 저조한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들은 어느 정도 정리하여 조직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